

현대 패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의 패턴 특징에 관한 연구

신 장 희[†]

경성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The features of pattern in the puff sleeve as observed in modern fashion

Jang-Hee Shin[†]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yungsoong University[†]
(2020. 4. 5 접수; 2020. 6. 15 수정; 2020. 6. 24 채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nual frequency and clothing type by extracting puff sleeves designs from overseas fashion collections from S/S and F/W 2017 to S/S and F/W 2019. Specifically, it analyzed produc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 methods by the type of puff sleeve design, and found the following: In terms of the percentage of puff sleeves by season, S/S 2019 was the highest. Since Newtro, with a 1990s sensitivity, was the mainstream trend during the S/S 2019, power puff sleeves, a signature of the Newtro style, accounted for the greatest portion of this design feature. In terms of the type of clothes with puff sleeves, 'dress' (54.3%)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hirts/blouse' (27.5%), 'jacket/coat' (12.5%), and 'padded coat/jacket' (5.7%). Specifically, puff sleeve patterns were found mostly in the 'dress' category, more than 47% every season, while the figures were more than 23%, 9.3%, and 2.6% in 'shirts/blouse', 'jacket/coat' and 'padded coat/jacket', respectively. In other words, puff sleeve designs were more common in 'dress' or 'shirts/blouse' than in a 'padded coat/jacket'. In general, the shoulder length is reduced to prevent the shoulders from looking broader because of puffs. In contrast, recent puff-sleeve styles differ from those introduced by modern fashion designers in that they have drop shoulders with puffs attached. Furthermore, as constructive and over-exaggerated sleeve patterns appeared, puffs were applied to diverse sleeve styles including mutton leg and Mameluke styl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industry through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pursuing unique styles and serve as the basis for further studies on the configuration methods of puff sleeves. This study will be used in various ways, including as educational material on sleeve patterns. Through the analysis of sleeve patterns, this study tries to provide basic data for planning the design of puff sleeves and helping to diversify the ladies' apparel market in the future.

Key Words: puff sleeve(퍼프 슬리브), balloon sleeve(벌룬 슬리브), drop puff sleeve(드롭 퍼프 슬리브), pattern(패턴)

[†]Corresponding author ; Jang-Hee Shin
Tel. +82-51-663-5942
E-mail : sjh0919@ks.ac.kr

I. 서론

팔은 의복의 소매로 표현되는 부위로서 소매의 형태와 크기는 복식의 무드를 폭넓게 결정하고 복식 전반의 통일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권위와 예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비활동적·비합리적으로 구성되는 장식적 경향을 띠기도 한다(김민자, 2004). 소매는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의복에 있어 가장 다양한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패션 트렌드 속에 소매형태들이 재등장하거나 새롭게 응용되어 유행 경향의 하나로 소개되어져 왔다.

퍼프슬리브는 ‘부풀린 소매’라는 뜻으로 디자인에 따라 소매단 부분만 부풀린 디자인, 어깨만을 부풀린 디자인, 어깨와 소매단을 모두 부풀린 디자인으로 나뉜다(천종숙, 석은영, 2009).

일반적으로 퍼프슬리브의 경우 소매 달림선을 부풀리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깨길이를 줄여주는 것에 반하여 2017년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퍼프슬리브형태는 드롭숄더에 퍼프가 달리거나, 드롭된 어깨의 상완 부분을 절개하여 밑부분에 퍼프가 달린 소매가 나타나, 이제까지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응용되어 소개되었던 형태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패션트렌드에는 1980년대의 웨딩드레스에서나 볼법한 풍성한 퍼프슬리브가 돌아왔으며, 다만 새로운 세대의 퍼프슬리브는 각진 파워숄더가 아니라 여성스러운 느낌의 둥근 볼륨 숄더 형태의 퍼프슬리브이다(이세희, 2018).

또한 2019년 빅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1990년대 감성의 복고트렌드를 재해석한 뉴트로, 즉 새로운(New)레트로(Retro)스타일에서 대담하게 부풀린 퍼프슬리브는 뉴트로 스타일의 대표 아이템이다(유재부, 2019).

퍼프슬리브 블라우스는 페미닌하고 로맨틱한 스타일로 매년 주목을 받으며 러플, 셔링, 프릴 등 여러 가지 디테일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로맨틱한 소녀감성의 퍼프블라우스는 빅토리아시대의 로맨틱한 개더, 러플등으로 맥시멀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등의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더욱 과감하고 드라마틱하게 선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패션에서 퍼프슬리브 디자인이 4

대 컬렉션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퍼프 슬리브에 관한 연구로는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구미란, 이정순, 2007),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구미란, 이정순, 2008)가 전부이며 모두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실제로 현대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의 특징 및 패턴구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퍼프슬리브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및 구성패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퍼프 슬리브의 디자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의 형태적 요소 및 제작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퍼프 슬리브 패턴을 디자인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험을 통해 제작해 보고 패턴구성 특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여성복 패션 시장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는 퍼프 슬리브의 디자인을 기획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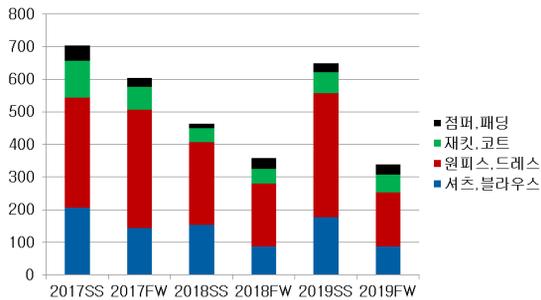
1. 2017년 S/S, F/W ~ 2019년 S/S, F/W 시즌 해외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를 추출하여 년도 별 빈도 및 의복 종류를 살펴보고 시즌별 퍼프 슬리브의 유형을 살펴본다.
2. 2017년 S/S, F/W ~ 2019년 S/S, F/W 시즌 해외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 형태별로 디자인 및 패턴을 분석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범위는 2017년~2019년으로 최근 3년간 발표된 해외패션 컬렉션에서 퍼프 슬리브 디자인을 중심으로 사진자료를 수집하였고, 퍼프 슬리브를 시즌별, 의복종류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디자인별로 분류하여 패턴을 분석하였다.

〈표 1〉 시즌별 퍼프슬리브

시즌	작품 수	퍼프슬리브 n(%)
2017 S/S	9954	704(7.1)
2017 F/W	9389	604(6.4)
2018 S/S	6705	463(6.9)
2018 F/W	3968	358(9.0)
2019 S/S	6247	650(10.4)
2019 F/W	3590	339(9.4)
합계	39853	3118(7.8)



〈그림 1〉 시즌별 퍼프슬리브의 의복종류

연구방법으로는 퍼프 슬리브 종류 및 제작방법을 중심으로 서적,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문헌 고찰 하였고, 문헌자료를 토대로 패션정보지인 collections, collezioni, 인터넷 정보 사이트인 스타일닷컴 (<http://www.style.com>), 퍼스트뷰 (<http://www.firstview.com>), 보그(<http://runway.vogue.co.kr>) 등의 시각적 자료에서 퍼프 슬리브를 추출, 선별하여 디자인 특징 및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퍼프슬리브 디자인별로 패턴을 분석하고, 광목으로 실물 제작하여 패턴을 실험한 후 디자인과 패턴을 함께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분석

1. 현대패션에 나타난 시즌별 퍼프슬리브 빈도 및 의복종류

2017 S/S~2019 F/W시즌 해외컬렉션 전체 879개 브랜드컬렉션, 39853개 디자인이 1차 자료로 수집되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퍼프슬리브를 선별하였다. 이중 퍼프슬리브를 선보이지 않은 브랜드컬렉션 디자인 컷 36735개를 제외한 3118개 디자인 컷이 최종 자료로 분석되었다.

39853개의 작품 중에서 퍼프슬리브는 7.8%(3118)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시즌별로는 2019 S/S 컬렉션에서 10.4%(650벌)를 차지해 퍼프슬리브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19 F/W 9.4%(339벌), 2018 F/W 9.0%(358벌), 2017 S/S 7.1%(704벌)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S/S 트렌드가 90년대 감성인 뉴트로 이다보니 뉴트로 스타일의 대표아이템인 파워퍼프슬리브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표 1).

시즌별 퍼프슬리브의 의복종류는 〈그림 1〉과 같이 원피스·드레스(54.3%)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셔츠·블라우스(27.5%), 재킷·코트(12.5%), 점퍼·패딩(5.7%)순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7 S/S 컬렉션에서 원피스·드레스 336벌(47%), 셔츠·블라우스 207벌(29.4%), 재킷·코트 114벌, 점퍼·패딩 47벌 총 704벌로 다른 시즌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며, 2019 S/S 컬렉션에서 650벌(20.8%), 2017F/W 컬렉션에서 604벌(19.4%), 2018 S/S 컬렉션에서 463벌(14.9%), 2018F/W 컬렉션에서 358벌(11.4%), 2019F/W 컬렉션에서 339(10.9%)벌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 시즌별 항상 원피스·드레스 아이템에서 퍼프슬리브가 47% 이상 꾸준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 셔츠·블라우스는 23%이상, 재킷 9.3%이상, 점퍼·패딩은 2.6%이

〈표 2〉 시즌별 퍼프슬리브의 의복종류

	2017 S/S	2017 F/W	2018 S/S	2018 F/W	2019 S/S	2019 F/W	Total n(%)
Shirt · Blouse	207 (29.4)	143 (23.7)	153 (30.0)	88 (24.6)	178 (27.4)	87 (25.7)	856 (27.5)
One-piece · Dress	336 (47.7)	363 (60.1)	254 (54.9)	193 (53.9)	380 (58.5)	166 (48.9)	1692 (54.3)
Jacket · Coat	114 (16.2)	70 (11.6)	43 (9.3)	45 (12.6)	64 (9.8)	55 (16.2)	391 (12.5)
Jumper · Padding	47 (6.7)	28 (4.6)	13 (2.8)	32 (8.9)	28 (4.3)	31 (9.2)	179 (5.7)
Total n(%)	704 (22.6)	604 (19.4)	463 (14.9)	358 (11.4)	650 (20.8)	339 (10.9)	3118 (100)

〈표 3〉 시즌별 퍼프슬리브의 유형

	2017S/S	2017F/W	2018S/S	2018F/W	2019S/S	2019F/W	Total n(%)
Balloon	115 (25.9)	53 (11.9)	98 (22.1)	23 (5.2)	117 (26.4)	38 (8.5)	444 (14.2)
Cowl	3 (7.3)	11 (26.8)	8 (19.5)	9 (22.0)	4 (9.8)	6 (14.6)	41 (1.3)
Raglan	57 (26.8)	29 (13.6)	30 (14.1)	24 (11.2)	52 (24.4)	21 (9.9)	213 (6.8)
Leg of mutton	129 (28.4)	89 (19.6)	58 (12.7)	52 (11.4)	72 (15.8)	55 (12.1)	455 (14.6)
Drop Puff	74 (22.1)	54 (16.1)	45 (13.4)	53 (15.8)	76 (22.7)	33 (9.9)	335 (10.7)
Drop+Line	17 (40.5)	5 (11.9)	1 (2.4)	5 (11.9)	13 (30.9)	1 (2.4)	42 (1.3)
Shoulder puff	115 (21.6)	158 (29.6)	70 (13.1)	54 (10.1)	65 (12.3)	71 (13.3)	533 (17.1)
Bishop	27 (19.9)	8 (5.9)	19 (13.9)	34 (25.0)	43 (31.6)	5 (3.7)	136 (4.4)
Peasant	131 (16.9)	160 (20.6)	117 (15.1)	95 (12.3)	187 (24.1)	85 (11.0)	775 (24.9)
Mameluke	26 (32.5)	23 (28.8)	9 (11.3)	3 (3.7)	15 (18.7)	4 (5.0)	80 (2.6)
Constructive	10 (15.6)	14 (21.9)	8 (12.5)	6 (9.4)	6 (9.4)	20 (31.2)	64 (2.1)
Total n(%)	704 (22.6)	604 (19.4)	463 (14.9)	358 (11.4)	650 (20.8)	339 (10.9)	3118 (100)

상으로 나타나 두꺼운 점퍼·패딩 보다는 상대적으로 얇은 원피스나 셔츠·블라우스에서 퍼프소매 디자인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2. 현대패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의 유형

현대 패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의 유형을 정리하기 위한 구분 기준은 ‘패션디자인’(한성지·김이영, 2014), ‘패션디자인 아카이브’(금기숙, 2012)

의 ‘소매’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퍼프슬리브 디자인은 벌룬(Balloon), 카울(Cowl), 래글런(Raglan), 레그 오브 머튼(Leg of mutton), 드롭 퍼프(Drop Puff), 드롭라인 퍼프(Drop+Line Puff), 숄더퍼프(Shoulder Puff), 비숍(Bishop), 페전트(Peasant), 마미루크(Mameluke), 조형적 디자인(Constructive design)으로 분류하였으며 퍼프슬리브 유형에 대한 분석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퍼프슬리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페전트 슬리

브(24.9%)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깨부분에만 셔링이 들어간 솔더퍼프(17.1%), 양의 다리모양인 레그오브머튼(14.6%), 벌룬 슬리브(14.2%), 드롭트 퍼프(10.7%), 래글런 슬리브(6.8%), 비숍슬리브(4.4%), 마멜 루크(2.6%), 구조적(2.1%), 드롭+라인(1.3%), 카울 슬리브(1.3%) 순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7 S/S 시즌 퍼프 슬리브의 유형이 래글런 슬리브(26.8%), 레그오브머튼(28.4%), 드롭+라인(40.5%), 솔더 퍼프(21.6%), 마멜 루크(32.5%)로 가장 많은 유형의 소매에서 많은 비중이 나타났는데 이는 낭만주의에서 유래하여 퍼프, 리플디테일을 사용한 2017 S/S의 로맨틱 트렌드와 소매에 입체적인 조형을 주어 과장된 퍼프소매를 보여준 큐비즘(조양현, 2017)의 영향으로 분석되어진다.

드롭트 퍼프 슬리브는 소매 진동선이 어깨선보다 치진 부분에 위치하며 그 부분에 퍼프가 달린 소매(금기숙 2012)를 말하는데 2019 S/S시즌과 2017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드롭+라인 퍼프슬리브는 이제까지 디자이너들에게 소개되어졌던 형태와는 다른 특징으로 드롭된 어깨의 상완 부분을 절개하여 밑부분에 퍼프소매가 달린 디자인이며, 2017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림 37>, <그림 38>과 같이 드롭트 퍼프슬리브와 같지만 원래의 어깨선에 절개선이 있는 소매를 드롭+라인 퍼프슬리브라 명명하였다.

또한, <표 1>에서 언급 했듯이 2019 S/S 시즌의 뉴트로 스타일 트렌드에 따른 퍼프 슬리브의 비율도 벌룬슬리브(26.4%), 드롭퍼프(22.7%), 비숍(31.6%), 페전트(2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현대패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의 디자인 별 패턴제시

퍼프슬리브는 소매 달림선이나 소매단에서 주름잡아 부풀린 소매로 디자인에 따라 소매단 부분을 부풀린 디자인, 소매달림선을 부풀린 디자인, 소매달림선과 소매단을 부풀린 디자인 등으로 나누며(천중숙 외, 2005) 퍼프의 양과 위치에 따라 느낌이 매우 다르다.

퍼프슬리브 디자인은 벌룬(Balloon), 카울(Cowl), 래글런(Raglan), 레그 오브 머튼(Leg of mutton),

드롭 퍼프(Drop Puff), 드롭+라인 퍼프(Drop+Line Puff), 마멜루크(Mameluke), 조형적 디자인(Constructive design), 페전트(Peasant), 비숍(Bishop)으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른 패턴을 제시하였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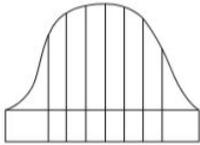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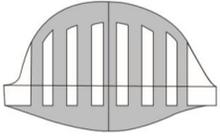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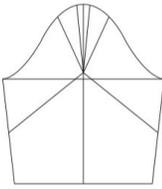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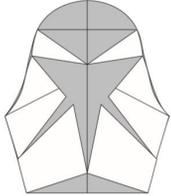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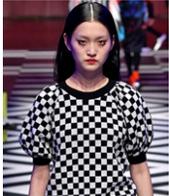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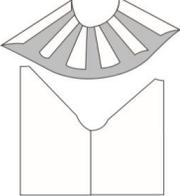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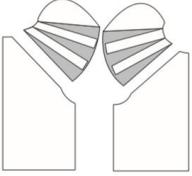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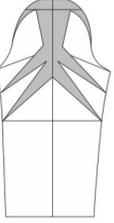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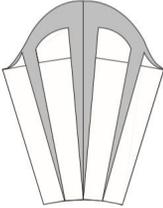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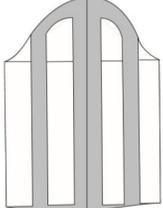
퍼프슬리브는 소매원형에 절개선을 주어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양만큼 벌려 제도하고, 소매부리에 퍼프가 있을 때에 볼륨을 준 소매부리를 커프스나 바이어스테이프모아주어 소매부리에 퍼프가 생기게 한다. 겨드랑이쪽에 퍼프가 있으면 불편하고 보기 좋지 않으므로 퍼프량은 주로 중심선과 뒤쪽에 집중적으로 주고, 소매달림선에 이즈가 많으면 예쁘지 않으므로 소매산의 이즈를 줄여준다. 어깨의 퍼프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깨에 패드를 넣거나 어깨가 작아보이게 하기 위하여 어깨선을 줄여주기도 한다(전은경, 권숙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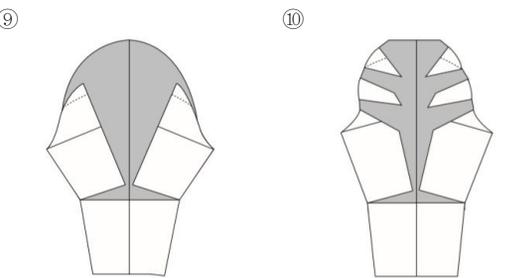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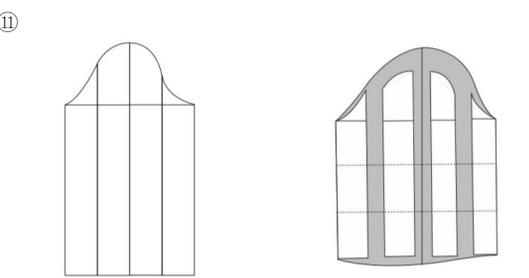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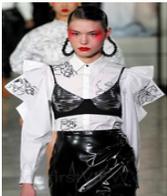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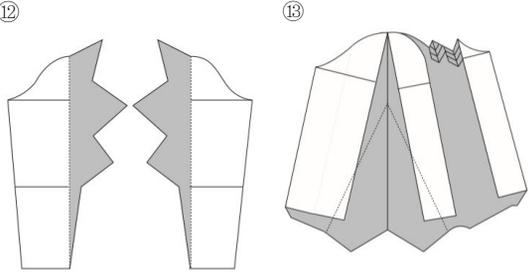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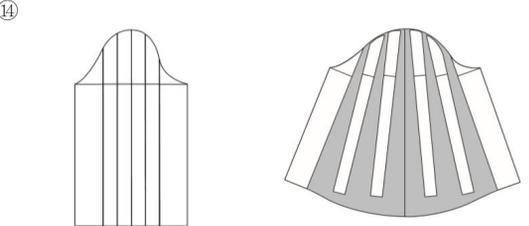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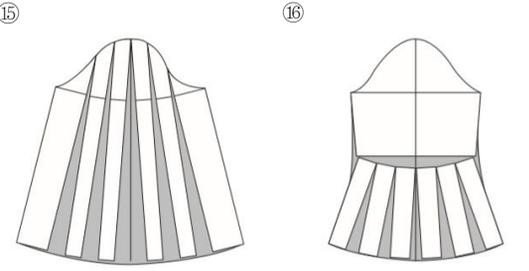
벌룬 슬리브는 풍선(balloon)처럼 크게 부풀린 소매로 멜론슬리브(Melon sleeve)라 불리기도 하며(유송옥 외, 2007) 퍼프슬리브보다 큰 소매를 말한다(그림 2), (그림 3). 소매산과 부리에 모두 퍼프를 넣은 소매로서 어깨와 가슴이 강조되는 디자인이다. 소매원형을 절개하여 원하는 퍼프의 양만큼 벌려주고 소매 달림선을 부풀리는 퍼프 제도 시 퍼프슬리브에 의해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판의 어깨길이를 보통 1.5~2cm줄여주는데 반해 워낙 디자인상 퍼프양이 많으므로 3cm줄여 주었다.

<그림 4>, <그림 5>는 카울 슬리브로 소매중심선에 원하는 깊이만큼 주름을 늘어뜨린다. 절개선을 넣어 주름만큼 벌려준 뒤 카울을 만든다. 패턴 ②와 같이 카울 주름방향에 따라 소매산 중심점을 기준으로 절개선을 넣고 카울의 깊이만큼 주름을 벌려준다.

래글런퍼프 슬리브는 래글런 소매를 주름 잡아 볼륨을 준 것으로 그림과 같이 래글런 소매의 길이 방향으로 절개하여 벌려주고, 소매라인을 둥글게 볼륨감을 주어 라인을 그린다. <그림 6>은 패턴 ③처럼 래글런 소매부분에 절개선을 넣고 퍼프양 만큼 전체적으로 벌려 주름을 잡아준다. <그림 7>은 패턴 ④와 같이 래글런 소매산 중심선을 절개하여 둥근 모양으로 그리며 소매부리부분에 작은 퍼프를 넣고 커프스로 모아 준다.

〈표 4〉 퍼프 슬리브 디자인별 구성패턴

	디자인		패 턴	
Balloon	 〈그림 2〉 David-koma17 S/S	 〈그림 3〉 etro 19 F/W	①  	
Cowl	 〈그림 4〉 Dior 17 S/S	 〈그림 5〉 Michael-kors19F/W	②  	
Raglan Puff	 〈그림 6〉 MSGM 17 F/W	 〈그림 7〉 CHANEL 19 S/S	③  ④ 	
Leg of mutton	 〈그림 8〉 D Squared 17 S/S	 〈그림 9〉 Ullajohnson 18 F/W	⑤  ⑥ 	
Drop Puff	 〈그림 10〉 Burberry 17 S/S	 〈그림 11〉 Osman 17 F/W	⑦  ⑧ 	

<p>Drop + Line Puff</p>	 <p>〈그림 12〉 Yves Saint Laurent 17 S/S</p>	 <p>〈그림 13〉 Yves Saint Laurent 17 S/S</p>	
<p>Mameluke</p>	 <p>〈그림 14〉 Jacquemus 17 S/S</p>	 <p>〈그림 15〉 Dolce& Gabbana 17 F/W</p>	
<p>Constructive design</p>	 <p>〈그림 16〉 Kenzo 17 S/S</p>	 <p>〈그림 17〉 Delpozo 17 F/W</p>	
<p>Peasant</p>	 <p>〈그림 18〉 Gucci 17 S/S</p>	 <p>〈그림 19〉 Celine 19 S/S</p>	
<p>Bishop</p>	 <p>〈그림 20〉 Erdem 18 F/W</p>	 <p>〈그림 21〉 marc-jacobs 19 S/S</p>	

그림출처: <http://www.firstview.com/>

레그오브머튼 슬리브는 양의 다리모양과 유사한 데서 붙여진 명칭으로, 슬리브의 윗부분은 크게 부풀려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좁아져서 소매부리에서 꼭 맞는 소매이다. 소매산에 개더나 턱을 잡고 소매 상부를 그림과 같이 동글게 하여 팔굽 언저리부터 차차 좁혀서 손목을 꼭 맞게 만든 소매를 말한다. <그림 8>은 어깨부분에 볼륨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소매원형의 소매산 부분을 소매산 중심점을 기준으로 패턴 ⑤와 같이 절개하여 어깨부분에 여유량이 많이 들어가게 위로 올려 벌려 주었다. <그림 9>는 소매산 중심점에서 팔꿈치선 까지 길이를 이등분하여 디자인의 퍼프주름방향으로 연결된 선들을 절개한 후 조화 있게 배치하여 벌린다(패턴⑥).

드롭트 퍼프 슬리브는 소매 진동선이 어깨선보다 처진 부분에 위(그림 10), (그림 11). 일반적으로 퍼프에 의해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판의 어깨길이를 줄여주는 것에 반하여 드롭 솔더에 퍼프가 달렸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응용되어 소개되어졌던 형태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드롭된 어깨부분에 봉제선 처리를 따로 해주어 드롭 된 소매가 더욱 부각되어 보이게 한 소매는 드롭+라인퍼프로 명명하였다(그림 12), (그림 13). 드롭+라인퍼프슬리브는 몸판의 어깨부분을 확장하지 않고 소매원형 윗부분을 잘라낸 후 나머지 부분을 절개하여 볼륨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마멜루크슬리브는 비라고 슬리브(virago sleeve)라고도 불리며 17세기에 유명했던 소매로, 간격을 두고 리본을 매어 퍼프시킨 소매이다(유송옥 외, 2007).

소매원형을 절개하여 원하는 디자인만큼 소매 윗부분과 소매부리 모두 절개선을 벌려주면 된다. 볼륨을 주기위해 소매둘레 중심에서 4cm올려 곡선으로 그려주고 간격을 두고 고무줄로 스티치준다(패턴 ⑩).

<그림 16>, <그림 17>은 조형적 퍼프슬리브라고 명명하였는데 기하학적인 모양이나 오리가미 형태로 부풀린 소매를 분류하였다. 패턴 ⑫와 같이 소매의 중심부분을 절개하여 벌려준 뒤 소매 중심선부분을 조형적으로 그리거나, 소매패턴을 절개하여 벌리고 앞 암홀부분에 디자인과 같이

턱을 잡아준 뒤 팔꿈치선 부터 손목둘레의 반을 접어서 고정시키는 오리가미(패턴⑬)로 소매중심선을 절개하여 조형적으로 연결시킴으로서 소매의 외곽선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페전트슬리브는 퍼프슬리브의 일종으로 소매의 윗부분과 소매부리에 개더가 잡힌 긴 소매이다. 유럽의 농민들이 주로 착용하던 블라우스에서 유래한다(그림 18), (그림 19). 소매원형을 절개하여 원하는 디자인만큼 소매 윗부분과 소매부리 모두 절개선을 벌려주면 된다(그림 18). <그림 19>는 소매 윗부분보다 소매부리 부분이 개더가 더 많이 잡혀 볼륨이 많으므로 패턴 ⑭와 같이 소매부리부분을 더 많이 벌려주었다.

<그림 20>, <그림 21>은 비숍슬리브로 비숍은 가톨릭에서 주교(主教)를 이르는 말로 주교들이 입는 옷에서 볼 수 있는 퍼프슬리브의 일종으로 길고 넓은 소매의 단부분에 개더를 잡아서 커프스로 조여 준 슬리브이다. 소매원형을 절개하여 암홀부분은 붙이고, 소매부분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기도록 패턴 ⑮와 같이 각 절개선을 벌려준다. <그림 21>의 비숍소매는 상완부에 비하여 손목부분에 상대적으로 볼륨이 많기 때문에 패턴 ⑯과 같이 소매원형을 팔꿈치 선에서 절개하여 팔꿈치 밑 부분만 벌려 자연스럽게 볼륨을 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퍼프슬리브의 특징 및 시즈에 따른 형태와 패턴구성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S/S시즌부터 2019년 F/W시즌까지 해외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퍼프 슬리브를 추출하여 년도 별 빈도 및 의복 종류를 살펴보고, 퍼프 슬리브 디자인 형태별 디자인 및 패턴 제작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즌별로는 2019 S/S 컬렉션에서 퍼프슬리브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2019년 S/S 트렌드가 90년대 감성인 뉴트로 이다보니 뉴트로 스타일의 대표아이템인 파워퍼프슬리브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즌별 퍼프슬리브의 의복종류는 원피스·드레스(54.3%)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셔츠·블라우스(27.5%), 재킷·코트(12.5%), 점퍼·패딩(5.7%)순으로 나타났다. 매 시즌별 항상 원피스·드레스 아이템에서 퍼프슬리브가 47%이상 꾸준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고, 셔츠·블라우스는 23%이상, 재킷 9.3%이상, 점퍼·패딩은 2.6%이상으로 나타나 두꺼운 점퍼·패딩 보다는 상대적으로 얇은 원피스나 셔츠·블라우스에서 퍼프슬리브 디자인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퍼프슬리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페전트 슬리브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솔더퍼프, 레그오브 머튼, 벌룬 슬리브, 드롭트 퍼프, 레글런 슬리브, 비숍슬리브, 마멜 루크, 구조적, 드롭+라인, 카울 슬리브 순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7 S/S 시즌 퍼프 슬리브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낭만주의에서 유래하여 퍼프, 러플디테일을 사용한 2017 S/S의 로맨틱 트렌드와 소매에 입체적인 조형을 주어 과장된 퍼프소매를 보여준 큐비즘의 영향으로 분석되어진다.

퍼프슬리브 디자인은 벌룬(Balloon), 카울(Cowl), 레글런(Raglan), 레그 오브 머튼(Leg of mutton), 드롭 퍼프(Drop Puff), 드롭라인 퍼프(Drop+Line Puff), 마멜루크(Mameluke), 조형적 디자인(Constructive design), 페전트(Peasant), 비숍(Bishop)으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른 패턴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퍼프에 의해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판 어깨길이를 줄여주는 것에 반하여 최근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퍼프슬리브 형태는 드롭 솔더에 퍼프가 달렸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응용되어 소개되었던 형태와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구축적이고 크게 과장된 소매가 많이 나타났고,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벌룬 슬리브, 지고트 슬리브, 카울 슬리브, 마멜루크 슬리브 등 다양한 소매형태에 응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에 따른 의복의 구성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패션산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소매패턴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여성복 패션시장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

는 퍼프 슬리브의 디자인을 기획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퍼프 제작방법 및 구성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의복이 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법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퍼프슬리브 디자인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구미란, 이정순. (2007).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패션비즈니스*, 11(4), 82-91.

구미란, 이정순. (2008).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2), 79-89.

권 진. (201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확장형 소매의 구성 특성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3), 29-42.

금기숙. (2012). *패션디자인 아카이브*. 서울: 조형사.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서울: 교문사.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2*. 서울: 교문사.

김영란.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 의 부분변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1), 103-122.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김현순. (2000). 소매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영국의 daydress를 중심으로-. *복식*, 5(7), 235-247.

박주희. (2012). 어깨 확장 디자인의 유형별 의복구성 분석. *한국디자인포럼*, 36, 409-420.

小池干枝. (1997). *소매이효진* 역). 서울: 예학사.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2006). *패션디자인*. 서울: 수학사.

유재부. (2019. 4. 8). 그 시절 패션! 촌스럽지 않게 연출하는 웨어러블 뉴트로 스타일. 패션엔, 자료검색일 2019. 5. 1, 자료출처 <http://www.fashionn.com>

이세희. (2018. 2. 1). 2018 S/S 패션 트렌드 리포트. 마리끌레르, 자료검색일 2019. 5. 1, 자료출처 <http://www.marieclairekorea.com>

- 전은영, 권숙희. (2000). *패턴제작의 원리*. 서울: 교문사.
- 조양현. (2017). *2017년 패션 트렌드에 따른 네일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천종숙, 석은영, 서동애. (2005). *새로운 의복 구성학*. 서울: 동서문화원.
- 한성지, 김이영. (2014).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